

거리에서

달밤의 거리

狂風이 휘날리는

北國의 거리

都市의 眞珠

電燈밑을 헤엄치는.

쫓으만 人魚 나.

달과턴등에 빛어

한몸에 둘셋의그림자.

커졌다 적어졌다.

×

靑靑의 거리

灰色빛 밤거리를.

것고있는 이마음.

旋風이날고 있네.

외로우면서도.

한갈피 두갈피.

피어나는 마음의그림자.

푸른 空想이

높아졌다 나자졌다.

一九三五、一、十八、

거리에서

달밤의 거리

광풍이 휘날리는

북국의 거리.

도시의 진주

전등밑을 헤엄치는

쫓그만 인어 나.

달과 전등에 비쳐

한 몸에 둘셋의 그림자

커졌다 작아졌다.

×

괴롭의 거리

회색빛 밤거리를

견고 있는 이 마음.

선풍이 일고 있네

외로우면서도

한 갈피 두 갈피

피어나는 마음의 그림자.

푸른 공상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1935. 1. 18.